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실패와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신 종 훈*

〈국문초록〉

이 글은 유럽방위공동체 창설 실패 이후 전개된 유럽통합의 재도약 과정을 유럽통합과 위기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럽방위 공동체와 유럽정치공동체 창설 실패라는 1950년대 유럽통합 초창기의 위기가 유럽경제공동체 출범이라는 통합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을 통해 위기가 유럽통합을 강화하는 역동성을 제공한 사례를 확인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1950년대 중반의 사례 연구를 통해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격을 가진 위기들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유럽통합과 위기의 상관성에 대해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주제어: 유럽통합, 위기, 유럽방위공동체, 유럽통합의 재도약, 유럽경제공동체

차 례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EDC 창설 실패와 유럽통합의 위기 | |
| III. 유럽통합의 재도약과 EEC조약 체결 | |

* 경상대학교 사학과/인문학연구소, 교수(morcancer@gnu.ac.kr)

I. 서론

19세기 국민국가 체제를 일부 수정하면서 1952년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¹⁾ 출범으로 시작된 유럽공동체의 역사는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오늘의 EU(유럽연합)²⁾에 이르렀다. 그 길의 도정에서 EU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 학자들은 각각의 위기와 도전이 많은 경우 새로운 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유럽통합의 역사를 위기와 재도약의 역사로 기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³⁾ ECSC가 이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창설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럽통합의 역사는 그 출발부터 위기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었다. 쿤하르트(Ludger Kühnhardt)에 따르면 ECSC 이후의 유럽통합사도 수많은 역설과 위기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많은 경우 위기의 변증법적 발전 속에서 유럽통합의 새로운 역동성이 발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통합과 위기’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학문적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유럽통합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기 자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발생한 위기들의 성격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이다. 분석적 관점에서도 위기를 통합의 이유나 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원칙적인 성격의 ‘통합의 위기’와 통합과정에서 특정한 목표 달성과 관련된 ‘통합 속의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⁵⁾ 그 외에도 21세기 초 지금의 EU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1) 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2) EU: European Union.

3) Ludger Kühnhardt, “European Integration: Success through Crises”, Ludger Kühnhardt (ed.), *Crises in European Integration. Challenge and Response, 1945-2005* (New York/Oxford, 2009), pp.1-17; Laurent Warloutzet,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Beyond the Crisis”, *Politique Européenne*, Vol. 44 (2014), p.III; Sylvain Kahn, “Les crises dans l’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de 1950 à nos jours : comparer pour comprendre”, Vincent Bassani/Laurence Burgorgue-Larsen, *L’Europe à l’épreuve des crises*, (Conférence de l’IREDIES / IREDIES Conference Paper, 2019), p.7.

4) Kühnhardt, “European Integration”, pp.1-2.

의 성격을 그 이전의 위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 관점에 의하면 이전의 위기들이 EU를 강화하는 경향성을 가졌던 반면 재정 위기, 헌법 위기, 회원국 탈퇴 위기, 난민 위기, 유럽연합 가치의 위기 등 현재 EU가 마주했거나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위기는 EU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실존적 위기의 성격을 가진다.⁶⁾

이 글은 유럽통합과 위기의 주제를 일반화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럽통합사 속 위기의 한 단면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54년 8월 30일 프랑스 의회가 EDC(유럽방위공동체)⁷⁾ 조약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했던 유럽통합 초창기의 위기가 어떻게 EEC(유럽경제공동체)⁸⁾ 출범이라는 통합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글의 주제이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1950년대 중반의 사례 연구를 통해 여전히 존속하고 있지만, 새로운 성격을 가진 위기들에 직면하고 있는 EU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유럽통합과 위기의 상관성에 대해 나름의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EDC 창설 실패와 유럽통합의 위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긴급하게 논의되었던 독일⁹⁾ 재무장 문제는 독일 국방군의 창설을 원하지 않았던 프랑스 정부의 제안으로 1952년 5월 27일 EDC 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EDC 조약은 국방군이 아닌 유럽식 탄철강공동체 6개국이 참여하는 유럽방위군의 형태로 독일에 군사력을 허락하는 일종의 차선책이었다. 그러나 조약체결 과정에서 양분되었던 프랑스 여론은 프랑스가 당시 국방 분야의 주권을 초국가적인 공동체에 양도하는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5) Ibid., p.1.

6) Kahn, “Les crises dans l’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p.16.

7) EDC: European Defence Community.

8) 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

9) 이 글에서 독일은 서독을 의미한다.

프랑스 의회는 1954년 8월 30일 EDC 조약의 비준을 안건으로 삼는 것조차 거부함으로써 EDC는 사장되고 말았다.¹⁰⁾ 유럽통합의 옹호자들에게 EDC의 실패는 1950년 5월 슈만플랜으로 시작되어 1952년 7월 ECSC를 발효시킬 수 있었던 전후 성공적이었던 유럽통합 과정에서 최초의 치명적 타격이자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독일의 재무장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쉽게 찾았고, 이후 경제적 통합을 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EDC 파국의 위기가 기존의 인식보다 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¹¹⁾ 그러나 이 같은 관점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이며, 당시 유럽통합 지지자들이 실제로 느꼈던 당혹감과 위기의식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EDC 실패 소식에 대한 유럽통합 옹호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당시의 좌절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준다. 미국의 국무장관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프랑스 의회의 EDC 조약 비준 거부를 “비극”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샬플랜 이후 서유럽통합과 EDC를 지지했던 미국 정부의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룩셈부르크 총리 베흐(Joseph Bech)에게 EDC의 실패는 “파국”이었으며, 신념에 찬 유럽통합 옹호자 스팍(Paul-Henri Spaak)에게 그것은 심지어 서방의 군사적 결속을 원하지 않았던 “소련의 승리”를 의미했다.¹²⁾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EDC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독일 총리 아데나워(Konrad Adenauer)에게 EDC 실패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EDC가 당시 연합국의 점령조례(Besatzungsstatut)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독일이 주권을 확보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었다. EDC 협상은 독일의 주권 확보 문제와 연계되어 동시에 진행되었고, EDC조약 체결 하루 전 1952년 5월 26일 본에서는 독일에 주권을 부여하는 ‘독일조약(Deutschlandvertrag)’이

10) 신종훈,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배경과 전개과정: 한국전쟁이 유럽통합에 미친 영향」,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7집 (2020), pp.89-109; 신종훈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과 독·불 관계의 역설」, 『독일연구』 제48호 (2021), pp. 65-87.

11) 김승렬, 「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 유럽경제공동체(EEC) 협상의 초기조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역사문화연구』 제22집 (2005), pp.284-291.

12) Gerhard Brunn, *Die Europäische Einigung von 1945 bis heute* (Stuttgart, 2017), p.98.

체결되었다.¹³⁾ 그러나 EDC 비준 실패로 인해 이 조약의 효력도 상실될 수밖에 없었고 기대했던 독일의 주권 확보가 당장은 불투명하게 되었다.¹⁴⁾ 슈피겔(SPIEGEL)지의 사설은 아테나위의 5년 동안 서방통합 외교가 독일인에게 폐허만을 남겼다는 독설을 퍼부었다.¹⁵⁾ 측근 인사들에게 비친 아테나위는 EDC의 실패 이후 그의 정치 여정에서 전무후무했을 정도로 당황했고 의기소침했으며 분노했던 것처럼 비쳤다. 아테나위는 1954년 8월 30일이 “유럽의 암흑의 날”이 되었다고 한탄했다. 아테나위의 최측근 인사였던 크로네(Heinrich Krone)에 따르면 심지어 아테나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총리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했을 정도였다.¹⁶⁾ 크로네는 EDC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조약이 실패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 총리는 강한 타격을 받았다. 그에게 EDC 조약은 새로운 유럽의 초석을 의미했고, (...) 초국가적인 유럽의 건설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¹⁷⁾

물론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독일의 재무장과 독일의 주권 확보 문제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었다. EDC 실패 이후 독일의 중립화를 요구하는 정치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아테나위와 친유럽적인 세력을 강화해줄 빠른 해결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었다.¹⁸⁾ 한동안 유럽통합을 주도했던 프랑스가 EDC 파국의 주역으로

13) 신종훈,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배경과 전개과정」, p.102.

14) 물론 아테나위는 독일조약과 EDC조약을 별건으로 생각해서 각각 비준절차를 거치게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두 조약을 일괄타결안(Junktim)으로 삼는 것을 관철시켰기 때문에 EDC의 실패가 자동적으로 독일조약을 무효화시켰다. Ludolf Herbst, *Option für den Westen* (München, 1996), p.98.

15) J. Daniel, “Der EVG Keine Träne”, (Der SPIEGEL, 1954년 9월 8일).

16) Paul Noack, “EVG und Bonner Europapolitik”, Hans-Erich Volkmann/Walter Schwengler (Hrsg.), *Die Europäische Verteidigungsgemeinschaft* (Boppard am Rhein, 1985), p.239; Manfred Görtemaker, “The Failure of EDC and European Integration”, Ludger Kühnhardt (Ed.), *Crises in European Integration. Challenge and Response, 1945-2005* (New York/Oxford, 2009), p.40.

17) Heinrich Krone, “Aufzeichnung zur Deutschland- und Ostpolitik 1954-1969”, Rudolf Morsey/Konrad Repgen (Hrsg.), *Adenauer-Studien III* (Mainz, 1974), p.135.

18) Henning Köhler, *Adenauer. Eine politische Biographie* (Frankfurt a. M./Berlin, 1994), pp.839-840; Hans-Heinrich Jansen, *Großbritannien, das Scheitern der EVG und der*

서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당시 6개국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국 정부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유럽정치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나갔다. 영국 외무장관 이든(Anthony Eden)의 제안으로 1954년 8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런던에서 ECSC 6개국, 영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가 참여한 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그리고 런던 회담의 결정들을 조약의 형태로 확정하기 위해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조약이 체결되었다. 파리조약을 통해 마련된 EDC를 대체하는 해결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재무장은 NATO에 편입될 12개 사단 규모의 연방군 창설을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영국,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국가들의 1948년 브뤼셀조약을 WEU(서유럽연합)¹⁹⁾로 확대하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세째, 독일에게 주권을 부여한다. 파리조약은 1955년 5월 발효함으로써 독일은 주권 국가가 됨과 동시에 NATO와 WEU의 회원국이 되었다.²⁰⁾

이든의 구원투수 역할로 독일 재무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간 협력 형식의 유럽에만 함께했던 영국 역할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영국 주도의 유럽정치가 초국가적 유럽을 지향했던 1950년대 초·중반 유럽통합이 처한 위기를 궁극적으로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²¹⁾ 게다가 무엇보다도 EDC의 실패는 단순히 초국가적인 유럽군 창설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더 원대한 프로젝트의 실패도 동반했다. EDC조약 협상 시작 무렵부터 EDC를 민주적으로 관리할 공동의 정치적 기구 창설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방주의자 드 가스페리(Alcide de Gasperi)

NATO-Beitritt der Bundesrepublik (Bochum, 1992), p.179.

19) WEU: Western European Union.

20) Anthony Eden, *The Memoirs of Anthony Eden. Full Circle* (London, 1960), pp.167-174;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Hrsg.), *Anfänge westdeutscher Sicherheitspolitik 1945-1956, Bd. 3: Die NATO-Option* (München, 1993), pp.33-64; Jansen, *Großbritannien*, pp.234-255.

21) 1950년대 초·중반 유럽통합을 마주하는 영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W. Young, *Britain and European Unity, 1945-1999* (London, 2000), pp.26-52; 신종훈, 「브렉시트와 유럽통합 - 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까지 영국의 유럽정치」, 『통합유럽연구』 제8권 (2017), pp.175-181.

가 이끌었던 이탈리아 정부의 주도로 조약체결 이후 “연방국가 혹은 국가 연합”의 성격을 가진 EPC(유럽정치공동체)²²⁾를 창설할 것을 명시한 EDC 조약 38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EPC 조약을 마련할 특별위원회는 1952년 9월 15일 활동을 시작해서 1953년 3월 10일 EPC 조약 초안을 6개국에 제출할 수 있었다.²³⁾

물론 EPC조약 초안 규정의 확정과 관련하여 정부간 이견이 존재했다. 특히 네덜란드 외무장관 바이엔(Johan Willem Beyen)은 EPC를 지원하는 경제적 구조로 공동시장의 창설을 EPC와 연계시키기를 원했지만, 프랑스 정부가 경제공동체를 반대함으로써 6개국의 외무장관들은 이 문제를 EDC 조약 비준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미루었다. 따라서 EPC 조약 체결의 운명은 EDC의 비준 여부에 종속되었고, EDC가 사장됨으로써 원대한 정치공동체 창설 계획도 함께 사망하고 말았다.²⁴⁾ 결국 EDC의 실패는 1950년대 중반 최초의 야심적인 초국가적 성격의 정치공동체 창설 프로젝트마저 땅에 묻어버렸고, 유럽통합 운동 출발 초창기에 품을 수 있었던 ‘유럽 연방국가 혹은 국가연합’의 원대한 꿈도 함께 사라짐으로써 유럽통합 옹호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크니핑(Franz Knipping)의 설명처럼 이제 이후 어떻게 다시 유럽통합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먼 미래의 일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다.²⁵⁾

22) EPC: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23) Basil Karp, “The Draft Constitution for a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8, No. 2 (1954), pp.182-184; Michael Burgess,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the Building of Europe, 1950-2000* (London/New York, 2000), p. 69; Franz Knipping, *Rom, 25. März 1957. Die Einigung Europas* (München, 2004), pp.79-80; Michael Ley/Klaus Lohmann, *Projekt Europa. Erfolg-Intimer-Perspektiven* (Düsseldorf, 2007), pp.85-87. EPC조약 탄생과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alter Lipgens, “EVG und politische Föderation. Dokumentation”,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2 (1984), pp.637-688; Wilfried Loth, *Der Weg nach Europa.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1937-1957* (Göttingen, 1990), pp.97-105; Hanns Jürgen Küsters, “Zwischen Vormarsch und Schlaganfall. Das Projekt der Europäischen Politischen Gemeinschaft und die Hal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1-1954)”, Gilbert Trausch (Hrsg.), *Die europäische Integration vom Schuman-Plan bis zu den Verträgen von Rom* (Baden-Baden, 1993), pp.259-293.

24) Gerhard Brunn, *Die Europäische Einigung von 1945 bis heute* (Stuttgart, 2017), pp.95-96.

둘이켜 보면 1950년대 중반 초국가적 정치공동체를 창설하려 했던 시도는 성급했다. 모네(Jean Monnet)가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공동의 방어가 공동의 정치적 기구(authority)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가 애초 생각했던 것처럼 ‘정치적 유럽’이 서서히 점진적인 통합과정의 정점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던 성급함이 있었다.²⁶⁾ 정치공동체 창설 시도는 실패했고, 여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6개국만의 작은 유럽의 범위에서 추진되었던 유럽 통합에 비판적이었던 독일의 경제부 장관 에하르트(Ludwig Erhard)는 EDC 실패가 초래한 유럽통합의 암울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통합의 파도는 이제는 높지 않으며, 우리는 유럽 협력의 어떠한 상념들도 버려야만 할 것인지를 되묻고, 공생의 정신이 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²⁷⁾ 이처럼 EDC의 실패는 희망으로 돌아올랐던 1950년대 초·중반 유럽통합 발전의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던 최초의 심각한 위기였다.

III. 유럽통합의 재도약과 EEC조약 체결

1. 메시나 회담과 유럽통합의 재도약

EDC 실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공동체 창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유럽통합 옹호자들 사이에서는 수년간의 통합노력이 갑작스럽게 모두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²⁸⁾ 당시 벨기에 외무장관이었던 스팍은 이 같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나는 모네와 함께 이 순간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현상을 수용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통합의 발전을 좌절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²⁹⁾ 따라서 스팍은 모네와 함께 통합의 바퀴를 다시 가

25) Knipping, *Rom*, 25. März 1957, p.81.

26) Burgess,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p.68.

27) Görtemaker, “The Failure of EDC and European Integration”, p.33.

28) Hanns Jürgen Küsters, *Die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Baden-Baden, 1982), p.64.

동하기 위한 어떤 제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 모네 역시 스팍과 비슷한 생각을 했다. 그에 의하면 “EDC의 실패가 진공상태를 만들었지만, 유럽을 건설해야만 한다는 사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통합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1954년 11월 임기가 다해가는 고위관청 의장직을 다시 맡지 않겠다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³⁰⁾ 이처럼 위기의식은 유럽통합의 옹호자들이 유럽통합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들을 모색하게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었다.

통합의 지속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이후의 고민 속에서 정치적 통합의 새로운 시도보다는 경제적 분야에서 통합의 확대라는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었다. 그 이유를 카이저(Wolfram Kaiser)는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EDC 거부를 통해 정치적 통합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낸 프랑스조차도 경제적 통합에 대한 반대는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다. 둘째, 유럽통합의 옹호자들이 경제적 통합의 심화가 결국에는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셋째, NATO와 WEU가 독일을 서방세계에 묶어두는 틀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국의 관점에서 기존의 유럽 경제 협력의 허브로서 영국이 주도했던 OEEC(유럽경제협력기구)³¹⁾가 유럽통합의 구심점이 되기에는 결집력이 부족했다.³²⁾

1954년 말부터 1955년 초반까지 경제적 영역에서 새로운 통합의 시도를 위해 그려졌던 구상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통합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최초의 구상으로서 첫 번째 통합방식은 모네와 스팍의 협력에서 나왔다. 물론 새로운 도약을 향한 최초의 동력제공자는 모네였다. 그는 통합의 위기에서 새로운 구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ECSC의 존

29) Paul-Henri Spaak, *Mémoires d'un Européen* (Hamburg, 1969), p.297.

30) Jean Monnet (박제훈/옥우석 공역),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회고록』 (세림출판, 2008), pp.453-454.

31) 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32) Wolfram Kaiser, *Großbritannien und die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1955-1961* (Berlin, 1996), pp.30-31.

속마져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로 인해 EDC 실패 다음 날부터 고위관청의 협력자들과 함께 통합의 새로운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모네는 고위관청의 권한을 교통과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며, 특히 그가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원자력 에너지 분야는 별도의 공동체를 창설하는 안³³⁾을 다듬어 내었다. 모네의 주도로 탄생한 구상의 핵심은 ECSC를 모델로 삼은 분야별 통합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 즉 부분통합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모네의 구상을 정치적 현실이 되게 하는 일은 EDC 실패 후 파리에서 모네를 만나 함께 유럽통합 재도약을 고민했던 스팍이 맡게 되었다. 즉 모네는 구상을 다듬었고, 스팍은 불신받는 프랑스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정치적 이니셔티브 제공 역할을 담당했다. 1955년 4월 초 스팍은 모네와 합의한 부분통합 확대 제안과 이를 위한 정부간 회담 개최 제안을 ECSC 회원국에게 서신으로 전달했다.³⁴⁾

스팍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새로운 회담을 개최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네덜란드 외무장관 바이옌은 4월 4일 답신을 통해 부분통합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경제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수평적인 전체통합을 옹호하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드러내었다.

“모든 부분통합은 한 분야의 문제점들을 다른 분야나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성을 가지며, 외국의 경쟁을 배제하게 될 것이다. (...) 따라서 베네룩스 국가의 정부는 공동의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초국가적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로 삼고 관세동맹의 형태를 가진 경제공동체 창설을 통해 유럽의 경제

33) 로트(Wilfried Loth)에 따르면 모네가 원자력공동체 창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프랑스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수요를 저렴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2)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3)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감독할 수 있기 위해서. Loth, *Der Weg nach Europa*, p.114.

34) Jean Monnet (박제훈/옥우석 공역),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pp. 454-455; Spaak, *Memoiren eines Europäer*, pp. 297-298; Knipping, *Rom, 25. März 1957*, pp.82-83; Brunn, *Die Europäische Einigung*, pp.100-101.

적 통합을 실현하는 과제를 가져야 한다.”³⁵⁾

이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두 번째 통합방식으로서 바이엔이 이미 1953년 EPC조약 마련 당시 주장했던 공동시장을 가지는 경제공동체 창설 안이 다시 통합논의의 중요한 안건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바이엔의 제안을 통해 유럽통합이 부분통합에서 전체통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제시될 수 있었지만, 모네와 스팍은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이 지나치게 과감하다는 일말의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다. 바이엔의 공동시장 창설 제안은 특히 보호주의적 경제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프랑스가 수용하기 어려웠고, 새로운 계획의 실패를 유럽통합 운동이 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⁶⁾ 그러나 모네는 원자력공동체 창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선호하는 경제공동체 창설 안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³⁷⁾ 서로 대립하는 두 통합의 방식, 즉 부분통합 확대와 전체통합의 방식은 결국 스팍의 중재를 통해 1955년 5월 20일 ECSC 국가들에게 전달되었던 베네룩스 각서의 제안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베네룩스 각서는 교통 및 에너지 분야로 통합의 확대, 원자력공동체 창설 그리고 경제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공동시장의 창설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았다.³⁸⁾

EDC 실패 이후 침체에 빠진 유럽통합을 다시 가동하기 위한 구상을 검토하기 위해 1955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이탈리아의 메시나에서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메시나 회담은 1957년 3월 25일 로마조약 체결로 이어지는 1950년대 중반 유럽통합 재도약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점에서 볼 때 메시나

35) Spaak, *Mémoires eines Européer*, p.300.

36) Knipping, *Rom, 25. März 1957*, p.85; Ley/Lohrmann, *Projekt Europa*, p.129.

37) Wilfried Loth, *Europas Einigung. Eine unvollendete Geschichte*, (Frankfurt/New York, 2014), p.59; Knipping, *Rom, 25. März 1957*, pp.86-87. Jürgen Mittag, *Kleine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n der Europaidee bis zur Gegenwart* (Münster, 2008), p.104 비교.

38) Küsters, *Die Gründung*, pp.106-109; *Europa-Archiv*, 10 (1955), pp.7978-7979; Knipping, *Rom, 25. März 1957*, p.87.

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관세동맹의 공동시장을 반대했고, 핵무기 개발을 원자력공동체의 통제 아래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원했으며, 독일은 6개국이란 ‘소유럽’의 공동시장과 원자력공동체에 반대하는 독일 내각 일부의 입장을 무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외무장관을 겸직하고 있었던 아데나워는 또 다른 외교적 실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메시나 회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외교차관(*Staatssekretär*)이었던 할슈타인(*Walter Hallstein*)을 대신 보냈을 정도였다.³⁹⁾

실제로 메시나 회담에서도 두 가지 통합 방법론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독일은 원자력공동체 창설에 비판적이었고, 프랑스의 외무장관 피네이(*Antoine Pinay*)는 공동시장 창설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EDC 실패 이후 새로운 시도가 또다시 프랑스에 의해 좌초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프랑스 대표단은 통합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협상의 지속에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 결과 6월 3일 새벽까지 지속되었던 쉽지 않은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파국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으로서 메시나 결의문이 작성될 수 있었다. 결국 메시나 회담은 유럽통합의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결정도 도출하지 못한 채 적어도 논의는 계속한다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⁴⁰⁾

국가별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공동의 의지를 표출했던 메시나 결의문은 “유럽 건설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갈 순간이 도래했다. 이 길은 우선은 경제적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의문은 또한 “(6개국 정부는) 통합된 유럽의 건설을 위해서 공동 기구들의 확대, 국민경제의 점진적인 융합, 공동시장의 창설, 6개국 사회보장정책의 점진적인 평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통합유럽의 창설을 위한 우선적인 4가지 목표들을 제시했다. 그

39) Ley/Lohrmann, *Projekt Europa*, p.132

40) Küsters, *Die Gründung*, pp.121-122; Derek W. Urwin, *The Community of Europe. A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since 1945* (London/New York, 1995), p.74; Ley/Lohrmann, *Projekt Europa*, p.132.

외에도 결의문은 “또 다른 목표들은 거대한 교통망의 구축, 더 풍부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 보급의 보장,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공동 기구를 통한 평화로운 목적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6개국의 합의가 베네룩스 각서의 제안에 기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¹⁾

이 같은 메시나 공동결의문은 유럽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통합의 무게 중심이 공동시장 창설에 놓여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바이엔의 구상이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개국 외무장관들은 메시나에서 합의한 새로운 통합 목표의 구체화, 즉 공동시장의 창설과 분야별 통합의 확대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들의 검토 및 정부간 협상의 준비를 위한 정부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6개국은 또한 이후 벨기에 외무장관 스팍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스팍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이 위원회의 활동에 영국을 초대할 것과 위원회의 보고서를 195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할 것도 합의했다.⁴²⁾

이 같은 메시나 결의문의 내용은 비록 통합의 서로 다른 방법론들 사이의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었지만, 그것은 경제공동체 창설이라는 이후의 유럽통합 발전에 중요한 기본적인 결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결의문의 채택은 그 길이 앞으로 어떤 길로 이끌지라도 통합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6개국의 원칙적인 동의를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퀴스터스(Hanns Jürgen Küsters)는 메시나의 합의가 “EDC 좌절 이후 유럽통합의 지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들과 실마리를 제공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메시나의 결정들이 이후 유럽통합의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했고, “메시나 회담이 유럽통합 이념의 위기를 새로운 동력으로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⁴³⁾

41) Heinrich von Sieglar, *Dokumentatio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Verhältnisses EWG-EFTA. Von der Züricher Rede Winston Churchills 1946 bis zur Beantwortung Großbritanniens um Mitgliedschaft bei der EWG 1961* (Bonn/Wien/Zürich, 1961), pp.91-92; Knipping, *Rom*, 25. März 1957, p.88.

42) Küsters, *Die Gründung*, p.124.

43) *Ibid.*, p.132.

2. 스팍위원회로부터 EEC조약 체결까지

스팍 위원회는 1955년 7월 1일 브뤼셀에서 최초의 모임을 시작해서 1956년 4월 21일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10개월 남짓 활동했다.⁴⁴⁾ 6개국에 의해 정식 초대를 받았던 영국 정부는 통상부 차관보(Under-Secretary) 브레서턴(Russel Bretherton)을 협상 전권을 가진 대표(delegate) 자격이 아닌 정부의 지시를 받으며 협상에 응하는 대변인(representative) 자격으로 브뤼셀 협상에 참여시켰다. 하급 관료를 그것도 대변인 자격으로 참여시킨 영국 정부의 선택은 영국이 메시나 이후 6개국 통합노력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⁴⁵⁾ 실제로 브레서턴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다수가 선호하는 관세동맹 대신에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사이의 선택 문제로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1955년 11월 스팍이 위원장 자격으로 다수가 동의하는 관세동맹 창설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이후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하자 결국 영국 정부는 브레서턴을 스팍위원회에서 철수시켰고, 이후 메시나 통합 시도를 좌절시키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⁴⁶⁾

1956년 4월 21 제출된 스팍보고서는 조약작성을 위한 정부간 협상의 과제를 유럽경제공동체 창설과 유럽원자력공동체 창설 두 가지로 축소했다. ECSC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경제의 다른 분야와는 단절된 부분통합의 한계에 대한 인식 및 부분통합이 전체통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모네가 제안했던 교통과 에너지 분야로의 부분통합 확대 구상은 스팍보고서에 의해서 폐기되고 말았다.⁴⁷⁾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가 선호했던 원자력공동체를 제외한다면 앞으로의 유럽통합이 기존의

44) 스팍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에 관해서는 Küsters, *Die Gründung* pp.135-268을 참조하라.

45) John W. Young, "The Parting Ways?: Britain, Messina Conference and the Spaak Committee, June-December 1955", M. Dockrill/John W. Young (ed.), *British foreign policy, 1945-56* (London, 1989), p.203; Sean Greenwood (ed.), *Britain and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Second World War* (Manchester/New York, 1996), pp.75-76.

46) Küsters, *Die Gründung* pp.209-213; Loth, *Europas Einigung* pp.61-62.

47) Küsters, *Die Gründung* p.265; Brunn, *Die Europäische Einigung* p.110.

부분통합에서 사실상 경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전체통합으로 나아간다는 전환을 의미했다. 1956년 5월 29-30일 베네치아 회담에서 6개국 외무장관들은 스팍보고서를 경제공동체와 원자력공동체의 조약작성을 위한 정부간 협상의 기본자료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1956년 하반기부터 정부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⁴⁸⁾

정부간 협상 역시 이전의 메시나 회담과 마찬가지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았다. 특히 9월 20일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 포레(Maurice Faure)가 프랑스의 공동시장 가입 조건으로 다른 회원국들이 수용하기 힘들었던 6가지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회담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1) 이행기의 1단계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6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때만 2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2) 6개국의 사회복지 비용은 이행기의 1단계 내에 평균화되어야 한다. 3) 프랑스는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기 전까지 수출보조금 지급과 수입세 징수의 권리를 가진다. 4) 무역수지 적자로 곤란에 처한 국가는 보호조치를 다시 도입할 수 있다. 5) 회원국의 해외 영토도 공동시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6) 만약 알제리 위기로 프랑스에서 현재와 같은 군비 지출의 부담이 지속될 때 프랑스는 공동시장의 발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⁴⁹⁾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보호받고 있던 프랑스 경제가 공동시장에서 마주치게 될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 조건들은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협상 자체를 정체 국면으로 이끌었다. 특히 자유무역 신봉자인 독일 경제부장관 에하르트스는 프랑스가 요구했던 사회보장 비용의 평균화가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10월 3일 OEEC 국가들이 참여하는 유럽 공산품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제안했다.⁵¹⁾ 그러자 에하르트스는 브뤼셀에서 진행되던 6개국의 정부간 협상을 중단하고

48) Spaak, *Memoiren eines Europäer*, p.319.

49) Küsters, *Die Gründung*, pp.303-304.

50) Alan S. Milward,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 State* (London, 1992), pp.212-213.

51) 신종훈,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구상과 내부 논의」, 『영국 연구』 제21호 (2009), p.246.

영국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우선적으로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심지어 에하르트스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상을 통해 보호주의적이며 규제적인 6개국의 관세동맹 창설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폐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⁵²⁾ 이처럼 시작부터 난관과 장애에 봉착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정부간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아무도 낙관할 수 없었다.

유럽통합의 노력이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독일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경제적 손익계산보다 유럽통합의 정치적 목적과 프랑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우선시했고, 메시나에서 시작되었던 통합의 새로운 출발을 성공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⁵³⁾ 그러한 이유로 그는 메시나 이후 에하르트와 원자력부장관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가 공동시장과 원자력공동체 구상을 비판하자 1956년 1월 19일 기본법 65조가 부여하는 총리의 원칙결정권한(Richtlinienkompetenz)을 발동하여 모든 부처의 입장들을 “메시나의 결정을 단호하고 어김없이 관철해야만 하는” 독일 정부의 방침과 유럽통합의 정치적 목표에 복속시킬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⁵⁴⁾ 메시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총리의 단호한 의지 앞에서 정부간 협상을 중단하자는 경제부 장관의 요구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⁵⁵⁾ 무엇보다 아데나워는 독일과 프랑스의 견해 차이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의 양자 대화를 통해서 협상의 위기의 돌파를 마련하자는 11월 3일 외무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파리 방문을 결정했다.⁵⁶⁾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위기도 정제된 정부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 1956년 11월 수에즈 위기와 소련의 헝가리 봉기 무력 진압은 초강대국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무기력함을 대비시켰

52) Daniel Koerfer, *Kampf ums Kanzleramt. Erhard und Adenauer* (Stuttgart, 1987), p.143; Loth, *Der Weg nach Europa*, p.125.

53) Peter Krüger, *Das unberechenbare Europa. Epochen des Integrationsprozesses vom späten 18. Jahrhundert bis zur Europäischen Union* (Stuttgart, 2006), pp.258-259.

54) Konrad Adenauer, *Erinnerungen 1955-1959* (Stuttgart, 1967), pp.253-255.

55) Koerfer, *Kampf ums Kanzleramt*, p.143.

56) Loth, *Europas Einigung*, p.67.

고, 동시에 유럽 국가들 결속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에즈 위기가 절정에 달한 11월 6일 아테나워는 만류를 뿌리치고 예정되었던 파리 방문을 단행했다.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당일 4시경 프랑스 총리 몰레(Guy Mollet)는 수에즈에서 합동 작전을 약속했던 영국 총리 이든으로부터 일방적인 영국군의 철수 결정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아테나워는 몰레에게 프랑스도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라고 조언한 후 “이제 우리가 함께 유럽을 만듭시다!”라고 덧붙였다.⁵⁷⁾ 초강대국의 압박으로 수에즈 공격을 포기해야만 하는 곤경에 처했던 프랑스 총리는 6개국의 통합을 통한 유럽의 결함을 이전보다 훨씬 더 필수적이라고 간주했고 동시에 독일 총리의 연대감 표시에 감사했다.⁵⁸⁾

위기의 순간 유럽통합을 통한 유럽 국가들 결속의 중요성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졌고,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정부간 협상의 중요한 장애물들이 마침내 양국 정상의 11월 6일 회동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었다. 몰레와 아테나워의 정상회담에서 프랑스는 보호조치 도입 조항과 관련한 양보를 받는 대가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확실한 일정표를 승인했고, 2단계로의 이행과 관련한 거부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부간 협상의 정체현상이 해소될 수 있었다. 1957년 2월에는 공동시장 조약협상의 마지막 장애물이었던 식민지 지역의 공동시장 편입과 투자기금 조성 문제와 공동농업정책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⁵⁹⁾ 그리고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EEC 창설 조약이 체결되었다. EEC 조약은 국가별 비준을 거친 후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EDC 실패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유럽통합은 이제 EEC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

57) Luuk van Middelaar, *Vom Kontinent zur Union. Gegenwart und Geschichte des vereinten Europa* (Berlin, 2016), p.261.

58) Karl Kaiser, *EWG und Freihandelszone. England und der Kontinent i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Leiden, 1963), pp.76-82; Hanns Jürgen Küsters, “Adenauers Europapolitik in der Gründungsphas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1 (1981), p.667.

59) Middelaar, *Vom Kontinent zur Union*, pp.261-262; Brunn, *Die Europäische Einigung*, pp.113-115,

IV. 결론

동시대의 유럽통합 옹호자들을 경악에 빠뜨렸던 EDC 실패의 위기는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이 ECSC라는 부분통합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제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EEC 창설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유럽통합이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방위공동체와 정치공동체 실패라는 1954년 통합과정 속의 위기는 더 통합된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DC의 실패는 당시 초국가적인 유럽의 방위공동체와 정치공동체가 쉽게 달성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신호가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한 브뤼셀 협상 과정에서 협상자들은 ‘초국가적’이란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⁶⁰⁾ 실패를 경험하면서 유럽통합 옹호자들은 한 세대 안에 두 개의 세계대전을 겪었던 유럽이 좀 더 느리고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유럽통합 옹호자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아데나워는 EDC 실패에 대한 소회를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놓았다:

“독일 정부가 정부수립 후 거의 5년 동안 추구했던 유럽통합정치가 EDC의 좌절로 인해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일로 인해 지금까지 추구했던 정치적 목표의 정당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유럽통합 정치는 우리 민족, 유럽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⁶¹⁾

1950년 중반 EDC와 EPC 실패로 인하여 유럽통합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목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아데나워의 태도는 21세기 초 소

60) Middelaar, *Vom Kontinent zur Union*, p.95 비교.

61) Konrad Adenauer, *Erinnerungen 1953-1955* (Stuttgart, 1966), p.301.

위 유럽통합의 ‘실존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힘든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분명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통합의 정당성, 다시 말해 유럽통합의 기본 가치는 신뢰를 받고 있으며 위기가 통합정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위기로 인해 오늘날의 혹은 앞으로의 유럽이 민주주의 원칙, 인권 보호, 시장 경제 체제 등에 기초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유럽의 건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더 긴밀한 연합의 구축이라는 유럽통합의 근본적 존재 이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위기가 유럽통합을 심화시키고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공식이 더는 유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Adenauer, Konrad, *Erinnerungen 1953-1955* (Stuttgart, 1966)
- Adenauer, Konrad, *Erinnerungen 1955-1959* (Stuttgart, 1967)
- Brunn, Gerhard, *Die Europäische Einigung von 1945 bis heute* (Stuttgart, 2017)
- Burgess, Michael,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the Building of Europe, 1950-2000* (London/New York, 2000)
- Daniel, J., “Der EVG Keine Träne”, (Der SPIEGEL, 1954년 9월 8일)
- Eden, Anthony, *The Memoirs of Anthony Eden. Full Circle* (London, 1960)
- Görtemaker, Manfred, “The Failure of EDC and European Integration”, Ludger Kühnhardt (Ed.), *Crises in European Integration. Challenge and Response, 1945-2005* (New York/Oxford, 2009)
- Greenwood, Sean (ed.), *Britain and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Second World War* (Manchester/New York, 1996)
- Herbst, Ludolf, *Option für den Westen* (München, 1996)
- Jansen, Hans-Heinrich, *Großbritannien, das Scheitern der EVG und der NATO-Beitritt der Bundesrepublik* (Bochum, 1992)
- Kahn, Sylvain, “Les crises dans l’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de 1950 à nos jours : comparer pour comprendre”, Vincent Bassani/Laurence Burgorgue-Larsen, *L’Europe à l’épreuve des crises*, (Conférence de l’IREDIES / IREDIES Conference Paper, 2019)
- Kaiser, Karl, *EWG und Freihandelszone. England und der Kontinent i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Leiden, 1963)
- Kaiser, Wolfram, *Großbritannien und die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1955-1961* (Berlin, 1996)
- Karp, Basil, “The Draft Constitution for a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8, No. 2 (1954)
- Knipping, Franz, *Rom, 25. März 1957. Die Einigung Europas* (München, 2004)
- Köhler, Henning, *Adenauer. Eine politische Biographie* (Frankfurt a. M./Berlin, 1994)

- Koerfer, Daniel, *Kampf ums Kanzleramt. Erhard und Adenauer* (Stuttgart, 1987)
- Krone, Heinrich, “Aufzeichnung zur Deutschland- und Ostpolitik 1954-1969”, Rudolf Morsey/Konrad Repgen (Hrsg.), *Adenauer-Studien III* (Mainz, 1974)
- Krüger, Peter, *Das unberechenbare Europa. Epochen des Integrationsprozesses vom späten 18. Jahrhundert bis zur Europäischen Union* (Stuttgart, 2006)
- Kühnhardt, Ludger, “European Integration: Success through Crises”, Ludger Kühnhardt (ed.), *Crisis in European Integration. Challenge and Response, 1945-2005* (New York/Oxford, 2009)
- Küstters, Hanns Jürgen, “Adenauers Europapolitik in der Gründungsphase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1 (1981)
- Küstters, Hanns Jürgen, *Die Gründung der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Baden-Baden, 1982)
- Küstters, Hanns Jürgen. “Zwischen Vormarsch und Schlaganfall. Das Projekt der Europäischen Politischen Gemeinschaft und die Hal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51-1954)”, Gilbert Trausch (Hrsg.), *Die europäische Integration vom Schuman-Plan bis zu den Verträgen von Rom* (Baden-Baden, 1993)
- Ley, Michael/Lohrmann, Klaus, *Projekt Europa. Erfolg-Irrtümer-Perspektiven* (Düsseldorf, 2007)
- Lipgens, Walter, “EVG und politische Föderation. Dokumentation”,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2 (1984)
- Loth, Wilfried, *Der Weg nach Europa.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1937-1957* (Göttingen, 1990)
- Loth, Wilfried, *Europas Einigung. Eine unvollendete Geschichte*, (Frankfurt/New York, 2014)
- Middelaar, Luuk van, *Vom Kontinent zur Union. Gegenwart und Geschichte des vereinten Europa* (Berlin, 2016)
-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Hrsg.), *Anfänge westdeutscher Sicherheitspolitik 1945-1956, Bd. 3: Die NATO-Option* (München, 1993)

- Milward, Alan S., *The European Rescue of the Nation State* (London, 1992)
- Mittag, Jürgen, *Kleine Geschichte der Europäischen Union. Von der Europaidee bis zur Gegenwart* (Münster, 2008)
- Monnet, Jean (박제훈/옥우석 공역),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회고록』 (세림출판, 2008)
- Noack, Paul, “EVG und Bonner Europapolitik”, Hans-Erich Volkmann/Walter Schwengler (Hrsg.), *Die Europäische Verteidigungsgemeinschaft* (Boppard am Rhein, 1985)
- Siegler, Heinrich von, *Dokumentation der Europäischen Integration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Verhältnisses EWG-EFTA. Von der Züricher Rede Winston Churchills 1946 bis zur Bewerbung Großbritanniens um Mitgliedschaft bei der EWG 1961* (Bonn/Wien/Zürich, 1961)
- Spaak, Paul-Henri, *Mémoires eines Européen* (Hamburg, 1969)
- Urwin, Derek W., *The Community of Europe. A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since 1945* (London/New York, 1995)
- Warloutzet, Laurent, “European Integration History: Beyond the Crisis”, *Politique Européenne*, Vol. 44 (2014)
- Young, John W., “The Parting Ways?: Britain, Messina Conference and the Spaak Committee, June-December 1955”, M. Dockrill/John W. Young (ed.), *British foreign policy, 1945-56* (London, 1989)
- Young, John W., *Britain and European Unity, 1945-1999* (London, 2000)
- 김승렬, 「1955 메시나 회의, 유럽통합의 재도약(Relance européenne)? - 유럽경제공동체(EEC) 협상의 초기조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역사문화연구』 제22집 (2005)
- 신종훈, 「영국의 유럽자유무역지대의 구상과 내부 논의」, 『영국 연구』 제21호 (2009)
- 신종훈, 「브렉시트와 유럽통합 - EEC 창설기부터 브렉시트까지 영국의 유럽 정치」, 『통합유럽연구』 제8권 (2017)

신중훈,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 배경과 전개과정: 한국전쟁이 유럽통합에 미친 영향」,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57집 (2020)

신중훈 「유럽방위공동체(EDC) 창설과 독·불 관계의 역설」, 『독일연구』 제48호 (2021)

〈Abstract〉

The fiasco of EDC project and the relauching of European integration

Jong Hoon SHIN (GNU)*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lauching of European integration after the failure to establish the European Defens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European integration and crisis. The crisis in the early day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e 1950s, the fiasco to create the European Defense Community and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was a driving force for a new leap forward in integration that led to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Case studies from the mid-1950s will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prospects for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facing crises with new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crisis.

Key words: European intgration, crisis, European Defense Community, the relauching of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원고접수일: 2023. 10. 15.

심사마감일: 2023. 11. 10.

게재 확정일: 2023. 11. 11.

* Professor, GNU/Institute of Study of Humanities(moreaner@gnu.ac.kr)